

돈돈村 지역사회 봉사 앞장

개점 앞두고 송우리 노인초청잔치

돈돈村 송우리(지점장 이연오)은 개점을 하루 앞둔 지난 1일 오후 5시부터 소흘읍 주공4단지 독거노인 등 70여명을 초청해 돼지갈비와 식사 등 무료로 음식과 음료를 제공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날 잔치를 마련한 이 지점장은 "지역사회 봉사의 취지를 알기 위해 돈돈村 분사와 의양상사 등에서 고기와 음료, 맥주 등을 무료로 제공해 주었다"며 "개점을 앞두고 실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봉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잔치에는 돼지갈비 200kg이 제공됐다. 돈돈村 100호점으로 개점하게 된 송우점은 지난 2일 개점했으며, 돈돈村 매장 중 가장 큰 규모로 저렴한 음식 가격과 친절한 서비스를 자랑하고 있다.

한편 이날 노인무료 음식제공에는 주공4단지 백경식 부녀회장 등 부녀회원 10여명이 참여해 도움을 주기도 했다.

지학배 기자 94spice@hanmail.net



돈돈村 송우점은 개점을 하루 앞둔 지난 1일 오후 5시부터 소흘읍 주공4단지 독거노인 등 70여명을 초청해 돼지갈비와 식사 등 무료로 음식과 음료를 제공했다. 사진 면적석 이연호 지점장.

“교통난 해소 지하철보다 도로개설 先行”

고조흥 국회의원 초청 교통난 해소 세미나에서

지난 29일 고조흥 국회의원이 주최한 '경기북부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한 세미나'에서 경기북부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보다 짧은 시간내 건설이 가능한 도로개설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세미나에서 국토연구원 정일호 박사와 대전대 김동선 교수가 교통난 해소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를 실시했으며, 이어 실시된 종합토론회는 소성규 대전대 교수 사회로 제타용 前도시철도공사 사장, 권영인 한국교통개발 연구원, 배기목 대전대 교수, 하승완 포천신문 취재국장, 오명진 경북대 교수, 김성원 알티비 코리아사장 등 6명이 교통난 해소를 위한 전략과 방향을 제시했다.

국토연구원 정일호 박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경기동북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고속도로 유치와 도시철도 연장사업이 모두 추진되어야 하지만 이용수요 및 경제적 측면 등을 고려하면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타당성이 없다"면서 "지역간 간선 역할을 할 수 있는 국도와 고속도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이를 근간으로 성장한 주요 거점들을 연결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을 때 도시철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대전대 김동선 교수는 "포천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고속도로 건설과 BRT건설과 대중교통체계 정비 등



지난 29일 고조흥 국회의원이 주최한 '경기북부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한 세미나'에서 경기북부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보다 짧은 시간내 건설이 가능한 도로개설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이루어져야 하고 장기적인 처방으로는 도시철도 연장사업이나 경전철 등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김 교수는 "현재 포천의 교통체계는 광역 및 내부교통 모두 향후 늘어나는 교통수요를 처리할 수 없는 상태"라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은 철도도입 및 고속도로 건설, 내부 도로체계 정립 등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계속된 종합토론회에서 제타용 前도시철도공사 사장은 "도시철도 차량기지지를 포천지역으로 유치하면서 지하철을 유치하려는 포천시 노력을 알고 있지만 철도노선을

유치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면서 "건설비용과 다른 여건을 감안하면 경전철 유치를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 나선 본지 하승완 취재국장은 "포천지역의 교통난의 근본적인 원인은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차량"으로 "포천지역에 우수고교 육성 및 특목고 설립"을 주장했다.

또 "포천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는 이 지역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중앙정부가 현재 진행중인 각종 도로계획을 조기에 착공할 수 있도록 정치적인 노력이 절실한 요구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불우이웃돕기 위해 450여만원 온정 모아”

재향군인회 여성회 소년소녀돕기 일일호프 盛了

재향군인회 여성회(회장 박미옥)는 지난 6일 소흘읍 송우리에 위치한 7080라이브클럽에서 소년소녀가장들이 일일호프를 개최하여 450여만원의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마련했다.

이번 일일호프는 재향군인회 여성회에서 지속적으로 돕고 있는 송우리 장애인아동과 일동과 군내면의 독거노인을 위해 생활비 등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경기대리 운전과 7080라이브클럽의 후원 속에 마련됐다.

재향군인회 여성회가 후원하는 장애인아동 및 독거노인은 지속적으로 돕기 위해 자체 정기회의에서 대상을 결정했으며, 과일판매와 포천시재향군인회(회장 이광호)가 연간 2회 각 20만원씩 지원하는 지원금으로 불우이웃을 돕고 있다.

박미옥 회장은 "올해 초 소년소



재향군인회 여성회는 지난 6일 소흘읍 송우리에 위치한 7080라이브클럽에서 소년소녀가장들이 일일호프를 개최했다.

녀가장들이 과일판매를 통해 거둔 수익금으로 그동안 불우이웃의 생계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었다"며 "이번 일일호프를 통해 거둔 수익의 전부를 장애인 및 독거노인의 생계비 및 생활비 지원을 위해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향군인회 여성회는 12월 현재 박미옥 회장을 중심으로 이인숙·김인숙·임영숙·이명숙·이미자 부회장 등 50여명의 회원이 각종 봉사활동하고 있다.

지학배 기자 94spice@hanmail.net

“높은 아파트 空室率 대책없다”

박윤국 시장, 이천목 의원질문에 답변

공급과잉으로 인한 포천지역 아파트 공실률이 높아지고 있지만 포천시 차원의 뚜렷한 대책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6일 계속된 포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이천목 산업도시위원장은 본지 323호 1면 '포천지역 아파트 공실률 위험수위' 기사와 관련, 포천지역 아파트 공급과 분양내역과 공실률에 대한 포천시 대책을 질문했다.

이에 대해 7일 박윤국 포천시장은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현재 높은 공실률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원인은 과잉공급이라기 보다는 공급시기가 적절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아울러 앞으로 8.31부동산 종합대책으로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어 외부에서 거주지가 매매되지 않아 송우지구에 입주해 포기하는 사태가 속출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아파트 건립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시장은 포천지역 공급된 아파트 물량은 최근 3년간 총 7천 189세대이며, 5천926세대는 소흘읍 택지개발 지구에 집중적으로 건립되었으며 이중 4천901세대가 올 해동안 입주했다고 말했다.

아파트 공실률에 대한 대책에 대해 박 시장은 "당장 공실률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지만 포천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역교통망 개선대책으로 간선급행버

스(BRT)사업과 민자 고속도로 등 교통문제와 교육정책 등 현안 문제점을 해결해 경기도 및 중앙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는 신도시 택지개발에 있어서는 단순히 인구유입 정책만이 아닌 첨단형 산업단지 유치 등을 통한 자족성 신도시를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송우택지개발 이후 소흘읍은 3천794세대가 증가한 반면 가산면은 107세대, 선단동은 297세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택지개발에 따른 영향은 가산면과 선단동 지역이 가장 많은 받은 것으로 보인다.

하승완 기자 forme65@paran.com

우리 동네를 말한다 ㉔

영북면 운천8리 이장 이남휘

하천변 개발로 지역 경제활용 극대화

포천시 영북면 운천8리는 운천 시내에 인접하고 있는 마을로 운천시내를 생활권으로 하고 있으며, 운천3리, 운천2리, 운천6리, 부소천과 인접해 있다.

이 마을은 최초 운천리 6개 시정 운천3리에서 1963년경 분할되었다가 운천4리로 편입되고, 운천4리에서 다시 운천8리로 분할돼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

마을에는 운천우체국과 한국통신 등이 입주해 있다.

운천8리는 12월 현재 380세대 1천200여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 한국전쟁 이후 타지에서 이사와 현재는 2세들이 마을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다.

주민들은 대부분 직장생활을 하는 회사원으로 20%는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5%는 벼농사 등 농사일에 전념하고 있다.

1995년부터 11년 간 이장을 맡고 있는 이남휘(45) 이장으로 부터 마을현황 및 발전상을 들었다.

운천8리는 이남휘 이장을 중심으로 김익준 노인회장, 임수권 새마을지도자, 장순홍 부녀회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 이장은 "예전에는 운천시내 전체의 경조사를 살피는 유학계가 조직됐었지만, 최근에는 조직이 사라져, 마을 자체적으로 청년회를 결성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말했다.

연중 마을행사는 1월 정월대보름에 마을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율놀이 축제가 개최되고 있으며, 8월에는 부소천 등지에 마을 노인들을 모셔 북놀이를 열기도 한다.

이 이장은 "지난해 12월 마을회관이 준공되고 노인회 조직을 재구성하는 등 구성원의 다양화와 내실있는 마을 운영을 구상하고 있다"며 "접차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마련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을의 노인회는 지난해 12월 마을회관준공으로 운천3리와 함께 운영된 것을 분리·독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노인이 50여명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특히 내년부터는 노인회 자체적으로 휴경지에 채소나 농작물 등을 심어 노인의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된 상태다.

이 이장은 "어르신들이 막상 모이면 일할 것이 없던 차에 의



이남휘 이장
영북면 운천8리

견이 나와 휴경지를 알아봐 내년부터 사용할 수 있게 마련했다"며 "농사일을 통해 많은 수익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노인들의 여가와 건강생활에 도움이 되는 바나나"고 말했다.

한편 부녀회의 경우 마을회관 2층에 마련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다.

청년회 조직의 경우 현재 추진중인 사안으로 주민이 대부분 40~50대 인 점을 감안 이들을 위주로 구성할 계획이다.

이 이장은 "도시지역이라 인원이 많이 없지만 청년회 조직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청년회는 자체 활동도 중요하지만 노인회 후원을 목적으로 조직되는 만큼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운천8리는 몇 년 전까지 부소천 범람으로 매년 여름 큰 홍역을 치러야 했다.

물론 최근 재방이 완공돼 범람의 위험은 사라졌지만, 이 이장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은 1997년 수해 때 마을을 위해 도와준 운천 주민들과 인근 군부대 장병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떨칠 수 없다.

이 이장은 "1997년 1000m가 넘는 폭우로 부소천 제방의 붕괴 위험이 있었을 때 운천 시내 주민 및 군부대장병들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었지만, 다행히 모두 협동해 막아낸 적이 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주민들은 지역발전을 위해 생산시설이 많이 들어오길 바란다"는 소망이 있다.

"영북면은 소비도시이고 운천8리 역시 같은 생활권에 들어 있기 때문에 생산시설이 건설돼 지역경제 활성화와 발전이 이루어질 바란다"고 말했다.

지학배 기자 94spice@hanmail.net

대자연의 선물에 정성을 듬뿍담은... 포천신문 창간 1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꽃샘 종합선물세트

"당신의 마음을 전하세요"

- 꽃샘 5호**
꿀대추차 1000g
꿀유자차 1000g
꿀솔잎차 1000g
- 꽃샘 6호**
꿀대추차 1200g
꿀유자차 1200g
- 꽃샘 4호**
영지꿀차
솔잎꿀차 × 600g
대추꿀차
- 꽃샘 기력세트 2호**
영지 꿀 차 1200g
잡 화 꿀 1200g
- 꽃샘 1호**
아카시아꽃 1200g
잡 화 꿀 1200g
- 꽃샘 1호**
꽃샘특선봉밀1호
잡화꿀 2200g
꽃샘특선봉밀2호
잡화꿀 1700g
- 꽃샘 2호**
꽃샘고려홍삼꿀세트
홍삼꿀 1000g
- 꽃샘 3호**
꽃샘토종고구리1호
토종꿀 2400g
꽃샘토종고구리3호
토종꿀 1200g

(주)꽃샘종합식품(대표이사:이성갑)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가팔리 240 TEL.031)541-9921(대) FAX.031)541-9933 www.ksfs.co.kr 소비자 상담실 전화번호는 080-541-9920